

영림원소프트랩, 전력거래소 차세대 통합 ERP 구축 사업 수주

- ▶ 영림원소프트랩, 전력거래소 노후 ERP 디지털화...전사 경영관리 기능 고도화
- ▶ 업무 자동화, 실시간 데이터 연동...업무 효율성 및 시스템 안정성 강화
- ▶ HR 전문기업 휴먼컨설팅그룹(HCG)과 협력해 인사관리 전 영역 디지털화

<2025-09-11>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전문기업 영림원소프트랩(대표이사 권영범, 060850)이 전력거래소의 차세대 통합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2001년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전력시장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관리, 실시간 급전 운영 등 국가 전력산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 운영뿐 아니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 등 친환경 미래 전력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력거래소의 노후화된 ERP를 디지털화하고 재무, 예산 및 인사(HR) 등 전사 경영관리 기능을 아우르는 차세대 통합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림원소프트랩은 공공 부문 프로젝트 경험과 ERP 솔루션 'K-System Ace'를 기반으로 최적의 ERP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는 ▲예산 관리 ▲지출 및 수입 관리 ▲구매 계약 관리 등 주요 업무를 자동화해 수작업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주요 데이터와 외부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해 경영 지표를 자동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사후 지원을 통해 전력거래소의 업무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HR 부문은 국내 최대 HR 전문기업 휴먼컨설팅그룹(HCG)과 협력해 구축한다. HCG는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그룹사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급여 자동계산 및 검증 자동화 ▲데이터 기반 조직 개편 ▲직무 기반 인사 기능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ERP 구축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재무, 예산, 인사 등 핵심 경영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시장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력거래소가 차세대 디지털 경영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System Ace의 통합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림원소프트랩은 ▲케이워터기술㈜ ▲금융결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주요 기관 프로젝트를 연이어 구축하며, 공공 ERP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이러한 공공 부문 실적을 바탕으로 전력거래소 차세대 ERP 구축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박윤경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이 착수보고회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